한국인구학 제20권 제2호(1997): 161~180 한국인구학회

# 중앙아시아 한인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과제

정성호*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한인의 생활실태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한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문제점을 전반적인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인 사회에 대한 현지조사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현지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타쉬켄트와 알마타에서 러시아어로 준비된 질문지를 통해 수행되었다. 이와 함께 한인 및 단체에 대한 방문, 면담, 관찰 등으로 얻은 질적 자료도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중앙아시아 한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체제변화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라는 과제와 직결된다. 예컨대, 경제적 기반이자 정신문화의 구심점이었던 집단농장이 붕괴돼 가고, 한글을 모르는 세대가 성장하면서 신구세대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정신적 보루였던 고려일보, 조선극장 등 각종 문화단체들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공화국의 자민족 중심정책에 따른 언어문제도 한인들에게 또 다른 적응의 고통이 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인들이 다민족 사회에서 자기의 말과 문화를 간직한 채 상당한 정도의 동질성을 유지해 가며 주위의 다른 민족과 잘 살아 나아가는 것이다. 현지어의 습득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각 공화국 개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인역도 맡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한국인 및 한국정부도 이들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정부 및 민간차원의 경제적·문화적 교류 활성화와 그 결과로서 현지 한인들의 생활기반 안정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그리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한인들의 자부심 고양 등이 한인들에 대한 자극제로 작용할 때 한인과 한국인 사이의 인식

*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의 공감대가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조국과 민족의식을 되찾아 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1. 머리말

중앙아시아에는 약 40여 만명의 한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가난과 일제의 학정을 피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로프스크 등 연해주 일대로 삶터를 옮겼던 한인들은 1937년 스탈린 시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강제이주 초기 한인들에게는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존을 위한 본능만이 존재했다. 당시의 정착과정에 대해 알마타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김 게르만은 "강제적인 이주의 정신적 충격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많은 한인들의 힘과 정신을 여지없이 눌러 놓았고, 새로운 풍토, 기후 및 민족적 환경에서 복잡하게, 고통스럽게 순조롭지 못하게 진행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주 직후의 비참한 상황은 1937-78년도의 극히 제한적인 인구조사 자료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인구 1,000당 42명이 사망했고, 유아사망률은 1,000명당 200명에 달해 아동 5명당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와있다. 또한 현재 한인들 가운데 연령층을 보면 1930년대 출생자가 매우 적다고 한다.

당시 한인들은 우선 강을 따라 모였다. 그리고는 광활한 벌판을 따라 운하를 파고, 운하를 따라 논을 만들고 벼를 심었다. 처음에는 토양의 염분 때문에 실패했으나 2-3년만에 마침내 대풍을 이루었다. 이들은 러시아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신화를 일궈낸 셈이다. 이후 한인들은 집단농장인 콜호즈를 중심으로 농사에 주력하여 전 소련에서도 유명한 폴리토젤 콜호즈, 김병화 콜호즈 등을 건설하였고 많은 사회주의 영웅을 배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인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 구소련체제가 해체되기 전까지는 많은 한인들이 각 공화국의 정계, 관계, 문화계, 경제계에 진출하였다.

이렇듯 20세기의 불행한 한민족의 역사를 맨몸으로 맞아야 했던 그들은 또 다른 세계사적 대흐름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급속히 진행된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은 한인들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이민족이자 소수민족으로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닦은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

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경제적 기반이자 정신문화의 구심점이었던 집단농장이 붕괴돼 가고, 한글을 모르는 세대가 성장하면서 신구세대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정신적 보루였던 고려일보, 조선극장 등 각종 문화단체들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들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이 지역의 소수민족인 한인들이 각종 민족분규의 직접적·간접적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

사실 중앙아시아 한인은 냉전시대 동안 우리에게 '잊혀진 존재'였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그곳까지 가서 살게 되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관심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간간이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학계의 관심 역시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1937년 강제이주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강제이주의 배경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과정에서 한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또한 그 문제의식이 중앙아시아 한인 그 자체에 맞추어져 있지 않거나 설사 맞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문제의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모국 중심적인 접근이 되는 경향이 강하다.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한인 자치주의 건설에 대한 성급한 논의와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 강조 등은 좋은 예이다.

중앙아시아 한인에 대한 접근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과거 수십 년 동안 피나는 노력과 근면성으로 현지에서 해당국가의 국민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걸어온 길과 현재의 삶을 우리의 현실적 자로써만 재려 들면 안 된다는 인식과 함께 한인의 문제를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들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운명도 이해할 줄 알아야 하고 다방면적이고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들 한인은 분명 한민족의 일원이기는 하나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여러 다른 민족들과 함께 독자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살아가고 있는 소수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현지 사회의 맥락 속에서 그곳 한인의 특수한 위상과 상황, 문화적 특성들을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카자흐스탄이든 우즈베키스탄이든 뿌리를 내린 곳에서 다른 민족들과 어울려 더 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한인의 생활실태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한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문제점을 전반적인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97년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인 사회에 대한 현지조사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현지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러시아어로 준비된 질문지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설문지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쉬켄트에서 201부,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알마타에서 177부 총 378개가 회수되었고 이들의 응답은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한인 및 단체에 대한 방문, 면담, 관찰 등으로 얻은 질적 자료도 이용되었다.

## 2. 중앙아시아 한인의 실태

### 1) 인구분포

구소련 정부의 공식집계에 따르면 1989년 현재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은 약 32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각 57.0%, 32.2%로 대부분이 이 두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한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 지역(알마타, 우

〈표1〉 중앙아시아 한인의 거주국가내 비율

| 독립공화국명 | 총인구(명) | 한인(명) | 비율(%) |
|---|---|---|---|
| 우즈베키스탄 | 19,810,077 | 183,140 | 0.92 |
| 카자흐스탄 | 16,164,464 | 103,315 | 0.62 |
| 키르기스탄 | 4,257,753 | 18,355 | 0.13 |
| 타지크스탄 | 5,092,603 | 13,431 | 0.26 |
| 투르키메니아 | 3,522,717 | 2,818 | 0.08 |

자료: 이광규 · 전경수(1993).

슈토베, 타쉬켄트 등)이 강제이주의 경유지 내지 종착지였으며, 스탈린이 사망하기 전 1953년까지 한인들은 주거지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생활이 주로 집단농장(콜호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강제이주 60년이 지난 1997년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18만명, 카자흐스탄에 11만명, 키르기스탄에 1만8천명 등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에 약 40여 만명에 이르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1979년의 25만명에 비해 약 15만명이 증가된 것이다

한편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이후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중 4만명 정도가 '상징적 고향'인 러시아 극동의 연해주 지방이나 모스크바 등 도시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역(逆)이동의 배경에는 민족적 갈등을 미리 피하거나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생활을 찾아보겠다는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옛 소련시절 열등한 것으로 여겼던 이슬람문화에 대한 거부감도 한몫을 했다.

오늘날 한인들이 중앙아시아의 각 공화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우즈베크인이 71.8%,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인 39.7%, 러시아인 37.8%에 비교할 때 한인들은 소수민족임을 알 수 있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중앙아시아 한인들은 과반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직업은 주로 기술자, 의사, 교사, 공무원 등이며 농촌 거주 한인의 경우는 물론 농업에 종사하는 특징을 보인다.[1]

한인의 도시집중현상은 각 공화국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에서는 알마타 주에서만 농촌에 거주하는 한인의 비율이 높고, 그 밖의 주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도시로의 인구집중 추이는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전통적인 콜호즈의 붕괴와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1)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알마타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 의사가 1천명, 변호사가 1백명에 이를 만큼 도시로 진출한 한인들은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표2〉 한인의 도시-농촌간 분포, 1979년

| 독립공화국명 | 전체인구(명) | 도시거주인구(명/%) | 농촌거주인구(명/%) |
|---|---|---|---|
| 우즈베키스탄 | 147,538 | 85,417(57.9) | 65,121(42.1) |
| 카자흐스탄 | 81,598 | 59,647(73.1) | 21,951(26.9) |
| 키르키스탄 | 9,404 | 6,010(63.9) | 3,394(36.1) |
| 타지크스탄 | 8,490 | 7,627(89.8) | 863(10.2) |
| 투르키메니아 | 3,493 | 2,505(71.7) | 988(28.3) |

자료: 고송무(1990).

〈표3〉 카자흐스탄내의 한인분포

| 주명 \ 연도, 도농 | 1979 | | | | 1989 | | | |
|---|---|---|---|---|---|---|---|---|
| | 도시 | | 농촌 | | 도시 | | 농촌 |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 알마타 | 989 | 21.0 | 3,731 | 79.0 | 1,567 | 30.2 | 3,626 | 69.8 |
| 잠불 | 9,549 | 84.0 | 1,816 | 16.0 | 11,461 | 85.8 | 1,896 | 14.2 |
| 카라칸타 | 10,288 | 96.7 | 350 | 3.3 | 11,214 | 97.2 | 327 | 2.8 |
| 크질오르다 | 11,032 | 88.2 | 1,471 | 11.8 | 11,155 | 91.6 | 1,027 | 8.4 |
| 탈디쿠르간 | 6,732 | 55.1 | 5,483 | 44.9 | 8,384 | 61.7 | 5,197 | 38.3 |
| 침켄트 | 8,498 | 76.8 | 2,573 | 23.2 | 9,680 | 84.7 | 1,750 | 15.3 |
| 카자흐공화국 | 73,985 | 80.4 | 17,999 | 16.6 | 86,977 | 81.2 | 16,338 | 15.8 |

자료: 카자흐스탄 정부, 《카자흐공화국 개관》, 1992.
이광규 · 전경수(1993)에서 재인용.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비교할 만한 시계열적 자료는 없으나, 1979년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한인의 비율이 이미 41.1-89.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최근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이 도시로 몰리는 성향은 기본적으로 높은 교육열과 이에 따른 직업과 사회활동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러한 추세가 최근에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한인들의 터전이나 다름없었던 콜호즈의 붕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농사를 지어도 판로를 찾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옛 소련시절에는 정부가 개입해 보조금을 주고 판로를 찾아주는 등 농업을 장려했으나 소련붕괴 이후 농업은 거의 방치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젊은이들은 도시로 돈을 벌러 떠나고 노인들만이 남아 자급자족을 위한 텃밭이나 가꾸며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땅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체제변화의 물결이 한인사회에 몰아치면서 땅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의식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대도시로 나가 경제적으로 성공해보겠다는 강한 성취욕을 지니고 있다.

도시로의 이주 성향과 함께 중앙아시아 한인들 사이에서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구이동으로 그동안 경작하던 땅을 버리고 매년 우크라이나, 북코카서스 등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절노동을 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고본질'이라고 불리는 이 장기 노동은 전형적인 계절노동의 형태를 띤 것으로 시장경제의 확산과 경제적 곤란의 확대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크게 번지고 있다.

### 2) 생활실태

#### (1) 가족과 결혼

중앙아시아 한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가족형태와 가족유형, 결혼, 이혼 등 가정생활에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인들의 전통적 생활양식의 변화 유무를 가늠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민족의 정체성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한인가족은 평균 4인 내지 5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중앙아시아의 다른 민족에게서도 볼 수 있는 평균 가족원수인 5인 가족과 근사한 수치라 할 수 있다(이광규 · 전경수, 1993). 이러한 결과는 중앙아시아 한인의 평균 자녀수가 2~3명임을 뜻하는 것이다. 평균 자녀수가 2~3명인 것은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자녀를 많이 낳는 전통이 강한 회교권 지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외라 할 수 있다.[2]

2) 사실상 옛 소련시절에는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여 자녀 5인 이상을 낳으면 그 부인에게 훈장을

이러한 상황은 본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정이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핵가족화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노부모와 부모 및 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 가정은 17.5%로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 한인의 결혼연령은 일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자의 경우는 22-27세, 여자는 이보다 낮은 18-23세로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심층면접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23세를 넘기면 자신은 물론 부모의 근심이 상당히 크다고 말하고 있으며, 대학에 재학중인 한인 남학생 중에서도 결혼한 경우가 꽤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조혼의 경향이 강함을 엿볼 수 있다.

바람직한 결혼형태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연애결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민족 사회인 중앙아시아에서 한인의 배우자 선택의 문제 즉, 다른 민족과의 결혼에 대한 관대함 혹은 거부감은 주요한 이슈이다. 이에 대해 본 조사에서는 한인들끼리의 결혼을 비교적 강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타민족이어도 상관없다는 비율이 17.7%인 데 반해 배우자가 한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9.8%로 혼족을 이루기보다는 한인들끼리의 결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중앙아시아 한인들은 세대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즉, 노년층은 타민족과의 결혼에 반대하는 반면 젊은층은 타민족과의 결혼도 애정이 전제됐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성향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강해져 강제이주 후 세대가 내려갈수록 다민족 국가라는 중앙아시아적 사회구조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접결과 젊은층은 타민족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부모의 반대를 꼽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부모와 자식 간에 결혼관에 대한 의식차이가 크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간 의식차이 속에서도 젊은층에서는 타민족과 결혼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자가 타민족의 여자와 결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 경우 한인 남자는 백인 특히 러시아 여자와 결혼하는 비율이 높으며

---

주고 자녀수당도 주며 연금생활도 빠르게 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했다.

이슬람권인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인과는 피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음식과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송무, 1990).

젊은 남녀가 결혼 후 분가를 선호하는 경향도 뚜렷해 전통적인 대가족제도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타에서 발행되는 고려일보가 최근 결혼 전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중 95%가 부모로부터 분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결과 응답자들은 실제로 자식들을 출가시킨 후 노부부만 사는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 한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이혼의 경향이 증대되고 있음도 주목의 대상이다. 이혼의 증가는 물론 중앙아시아 한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알마타 시는 인구가 약 100만명인데 연평균 약 12,000건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약 4,000건의 이혼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중 53%는 결혼한 지 3년이 못 가서 이혼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인들도 최근 이혼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혼의 이유로는 무엇보다 너무 조급하게 이해타산에 맞추어 결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최근 급격하게 여성의 권위가 신장됨에 따라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남편의 폭음 등도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데 이는 이혼청원 제출자의 상당수가 여자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이혼 증가현상에 대해 이미 1980년대 초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

(2) 사회경제생활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 한인의 생활수준은 타민족보다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인 고유의 근면성과 높은 교육열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의사, 교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도 높고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타민족에 비해 풍요를 누려왔다. 이러한 상황은 본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재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63.9%가 만족한다

3) 타민족과의 결혼과 이혼증가의 관계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옛 소련의 경우, 혼족가족의 경우 부부가 동족인 동족가족보다 이혼율이 낮고 견고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면접결과 한인의 경우는 혼족가족의 이혼이 더 많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표4〉 생활 각 부문에 대한 만족 여부 (단위: %)

| 항목 | 만족 | 불만족 | 무응답 |
|---|---|---|---|
| 소득(수입) | 46.0 | 47.6 | 6.1 |
| 가정생활 | 80.0 | 16.3 | 3.7 |
| 여가생활 | 60.8 | 32.7 | 6.5 |
| 직업 | 60.9 | 30.6 | 8.1 |
| 주거문제 | 74.6 | 21.1 | 4.3 |

고 답하고 있는 데 반해 불만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28.4%에 그치고 있다. 가정생활, 여가생활, 직업, 주거문제 등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입)에 관하여 응답자들은 불만족스럽다는 견해를 비교적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근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화과정에서 비롯된 높은 인플레율과 물가상승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면담과정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물가상승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장경제의 도입과정에서 빨리 적응한 한인과 그렇지 못한 한인들 간에 빈부격차도 점차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고민이나 불만 사항에 대한 견해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응답자들은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가장 높게(71.7%)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현지인과 언어소통의 어려움(58.5%), 부모-자식간 가치관 차이에 따른 갈등(35.4%)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족차별 문제(21.2%), 한인들간의 반목과 갈등(14.8%), 현지문화에 적응하는 어려움(11.9%)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옛 소련의 붕괴와 함께 이 지역의 급격한 체제변혁 과정에서 비롯된 경제난이 한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뒤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새롭게 독립국가가 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이 자민족 중심정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등 자민족 언어가 공식언어로 채택됨으로써 한인이 상대적인 불리함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앞서 지적한 대로 중앙아시아 한인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는 강제이주 초

〈표5〉 생활 속의 불만이나 어려움(복수응답)

| 항목 | 비율(%) |
|---|---|
| 인간적 외로움(한국에 대한 향수) | 20.4 |
| 부모-자식간 가치관 차이에 따른 갈등 | 35.4 |
| 현지인과 언어소통의 어려움 | 58.5 |
| 현지문화에 적응하는 어려움 | 11.9 |
| 경제생활(가계생활)의 어려움 | 71.7 |
| 민족차별 문제 | 21.2 |
| 한인들(또는 한인단체들)과의 반목과 갈등 | 14.8 |

기부터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성향은 본 조사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즉, 자식의 교육을 위해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지원하겠다(49.5%), 빚을 내서라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시키겠다(37.0%)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높은 교육열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 한인도 자녀는 오로지 공부만 열심히 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최근에는 상당히 흔들리고 있으며, 부모-자식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즉, 시장경제가 급격히 도입됨에 따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 전문직을 갖는 것보다는 돈을 빨리 버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고 일확천금을 노려 비지니스에 무리하게 뛰어들고자 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면담에서도 젊은이들은 비지니스에 가장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나는 젊은이들마다 대학에 가기보다는 비지니스를 일찍 시작해 큰돈을 벌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급격한 체제변혁과 새롭게 대두되는 자민족 중심정책의 확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앙아시아 한인들은 비교적 현지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현지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의 대부분(90.2%)은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인으로서 자긍심 또한 매우 강하게 지니고 있다. 즉, 타민족과 비교하여 한인이 우수하다는 의견이 88.8%에 이르고 있으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다

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7.0%가 긍정적인 시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한인의 특성에 관한 평가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컨대, '한인은 성실성과 인내심이 강하다', '단결력이 강하다', '법과 약속을 잘 지킨다', '독립심이 강하다' 등 14개 항목 모두에 대해서 한인 스스로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항목은 '공사의 구분이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응답자의 70.4%가 이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예컨대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한국인 사장이 그에 고용된 한인 운전기사를 식당에서 같이 식탁에 마주 앉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따뜻한 동포애의 발현이라 할 것이다. 물론 한인 기사가 이를 충분히 이해해 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업무상 상호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인들과 달리 현지 한인들은 구소련 때부터 공과 사를 항상 구별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고 이를 체질화시켰기 때문이다.

(3) 언어와 의례생활

구소련은 스탈린기 이후 러시아 민족중심의 동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소수민족의 정체성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특히 한인처럼 강제이주 당한 소수민족의 경우 이러한 정체성 위기현상은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인의 경우 정체성 위기는 언어상실에서 뚜렷이 드러난다(이종훈, 1994).

소련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1989년 현재 한국어를 모국어로 여기는 한인은 전체 한인의 49.4%이다. 이러한 비율은 1970년의 68.8%, 1959년의 79.3%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치로서 그동안 러시아어로의 동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는지 가늠할 수 있다(이종훈, 1994). 오늘날 중앙아시아 한인 중 60세 미만은 대부분 한국어를 모르거나 조금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생각하는 경향도 매우 높다.

이러한 언어상실의 상황은 본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응답자의 15.4%만이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답하고 있다. 한글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말하고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많거나 전혀 한글을 모른다고 답하는 데 반해 전혀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단지 8.8%에 그치고 있다. 어느 정도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비율이 비교적

〈표6〉 한국어 구사능력

| 항목 | 비율(%) |
|---|---|
| 말하고 읽고 쓰는 데 전혀 불편이 없다 | 8.8 |
| 어느 정도는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다 | 38.6 |
| 말하고 읽고 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 25.5 |
| 전혀 모른다 | 27.1 |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크게 일고 있는 한국어 교육 붐이 크게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체로 러시아어의 유창함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임을 면담결과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짧은 기간에 모국어를 상실하게 된 것은 강제이주민인 중앙아시아의 한인이 처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살아 남아서 대를 이어 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빠른 시간 안에 러시아화하는 것이었다. 물론 소연방에 속해 있던 다른 소수민족들도 거의 같은 처지였으나 중앙아시아의 한인 같은 강제이주민에게는 속히 동화해야만 생활을 영위해 가는 데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당시 중앙아시아로 이주된 한인들과 그 자녀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한국어'를 배우기보다는 러시아어를 더 잘 배우기 위해 노력했는지 모른다.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들 중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들만큼 철저하게 빨리 동화된 교포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다.

언어상실의 문제는 구소련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공화국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새롭게 독립국가가 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자민족 중심정책을 추진하면서 방송, 공문서 작성 및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우즈베크어, 카자흐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면서 비롯되고 있다. 이제 그 나라말을 못하면 관공서나 국영기업에 취업하기 힘들다. 국가기관의 고위직에 있던 한인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한 아이스하키팀의 코치였던 최 아투르(41세)는 우즈벡어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업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러시아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해온 한인들은 나라의 주인이 하루아침에 바뀌면서 강제이주시와는 또 다른 '적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현지조사에서 만난 한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언어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면서, 옛 소련시절에는 국가이념으로 민족간 평등의식이 강조돼 한인들은 소수민족이긴 했지만 러시아어만 익히면 사회 주요 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통로가 모두 막히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옛 소련체제에서 속히 러시아어를 익히는 것이 필요했듯이 앞으로 한인들이 현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즈벡어나 카자흐어를 다시 습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세대간 의사소통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례는 집합적인 정서가 가장 잘 표출되는 사회적 행위로서 종교의식과 장례의식이 대표적이다. 중앙아시아 한인의 경우 특별한 종교의식은 보이지 않으나 제사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제사 때에는 남녀가 모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찰떡, 부침개 등을 만들어 상을 차리고 세 번 절한다(박명규, 1996). 최근에는 현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교회 각 교파들의 진출과 선교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들 교회들은 선교활동 외에 자체 한글학교의 운영과 각종 자선 및 사회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교회 각 교파들간의 지나친 포교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이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현지인들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장례의식은 조상의식과 결합되어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인들은 '고려인의 고려인다움'을 나타내는 핵심이라고 여긴다.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은 자신들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할 때 다른 것은 버려두고서도 조상의 묘소에서 흙 한줌씩을 고이 싸서 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회고하면서 '유태인은 종교를 찾지만 한인은 조상을 찾는다'는 말로 한인들의 조상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박명규, 1996). 원래 장례식은 복잡한 의식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삼일장으로 치러지며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공동묘지에 나무관을 이용해 땅에 묻는다. 죽은 사람의 옷가지는 묘지에서 태우고, 관을 묻은 뒤 지신과 죽은 사람의 혼을 위해 제를 올린다. 또한 흙으로 봉분을 만들고 묘 앞에는 나무십자가와 붉은 별이 달린 표식을 세운다(고송무, 1990).

이 밖에 중앙아시아 한인들에게 음력설날, 추석, 단오 등은 매우 중요한 민족의 명절로 지켜지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대다수(91.5%)가 추석, 단오 등 명절을 지키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이때 주변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 것이 보통이다. 결혼이나 회갑 잔치에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초청을 받고 부조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회갑은 가장 큰 잔치로 고생하고 기른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이 큰 잔치를 한다. 이것은 객지에 산다는 이주민의 특성과 한국식으로 효도를 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지역의 교포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가장 큰 잔치이다(이광규 · 전경수, 1993).

음력의 사용 역시 중앙아시아 한인의 생활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알마타에서 발행되는 고려신문에는 매년 초, 그리고 매달 초 해당 시기의 달력이 실리는데, 여기에는 양력과 음력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고 24절기도 표시해 알려주고 있다. 풍속으로는 장기와 널뛰기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투는 한인들 사이에 비교적 널리 퍼져 있어 타쉬켄트 구일룩 시장에서는 한인 할머니들이 손으로 그려 만든 화투를 팔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 3. 맺음말

중앙아시아에는 현재 약 40여 만명의 한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의 극동지방 연해주에 살고 있다가 1937년 9월에서 12월에 걸쳐 스탈린에 의해 강제이주 당한 한인들과 그 후손들이다. 강제이주 60년을 맞은 현재 이주를 직접 체험했던 1세대 중 생존자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아직도 당시의 고통에 치를 떨고 있다.

강제이주당한 한인들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곳곳의 벌판에 산발적으로 내려졌다. 반 사막에 가까운 거친 땅, 쏟아지는 폭염, 사막 특유의 독거미 등으로 소련사람들조차 '신(神)도 버린 땅'이라고 부르는 곳이었다. 그들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제이주당한 한인들이 처음 한 일은 '제물랸카'라고 불리는 땅굴집을 만드는 것이었다. 운하를 파고 물을 받아 논을 만들어 벼를 심는 등 초기의 정착과정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존을 위한 본능만이 한인사회를 지배했다. 이후 한인들은 특유의 부지런함과 열성적인 자식교육을 바탕으로 130여 민족이 섞여 사는 다민족사회에서 나름대로 터전을 마련해 살아왔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급격한 체제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앙아시아 한인들은 전환기적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로 급격히 이행되는 과정 속에서 적응문제와 각 공화국의 자민족 중심정책에 따른 불안감과 상대

적 불리함 등이 그것이다.

우선 집단농장보다 상공업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기존의 한인세력집단인 집단농장이 빠르게 해체될 위기를 맞고 있다. 젊은층의 이농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전통적으로 농촌에 기반을 둔 한인사회의 결속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한인사회를 지탱해온 전통문화와 교육에 대한 열의 등이 경제문제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자칫하다가는 전통을 완전히 상실한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세대간 의식차이 또한 한인사회에서 점차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관, 가족관, 교육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더욱이 나이가 어릴수록 한국어를 상실해 가는 속도가 빨라 한인 세대간에 언어의 단절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민족 경험이나 문화·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한인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언어문제에 있다. 각 공화국이 자국의 언어를 러시아어 대신 공화국내 공식언어로 채택함에 따라 한인은 민족간 교제언어로서 러시아어와 공화국내 공식언어로서 주요 민족어를 습득해야 하는 이중언어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이중언어의 상황은 이제 겨우 한국어 교육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 한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한인이 공식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공무원, 교사, 연구종사자, 집단농장장 등 사무직 또는 관리직의 경우 사태는 심각한 지경이다.

한편, 중앙아시아 한인에게는 아직도 한국적인 생활모습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식생활에서 김치와 된장, 고추장 등을 담가먹는 모습이 여전히 맥을 이어오고 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면 널뛰기, 제기차기, 씨름 등 전통적인 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그 밖에 가족생활, 의례생활에서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경제생활에서도 한인들은 나름대로 터전을 닦아 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의 발전상이 중앙아시아에 소개되면서 한인들은 한국의 발전된 문화와 경제 상황의 이모저모를 엿볼 수 있었으며, 한국은 북한에서 말하던 것처럼 '기아와 암흑의 땅'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 기업체들이 중앙아시아에 진출, 경제개발을 위해 모험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투자하게 되자 이곳 한인들의 사회적 위상이 예전보다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우그룹은 과감하게 우즈베키스탄 경제개발에 전면적 투자를 단행하면서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여 우즈베키스탄을 자동차를 생산·수출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아 한국에 대한 인지도나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한인들도 이전의 일반 소수민족에서 경제 강국의 고국을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인들이 다민족 사회에서 자기의 말과 문화를 간직한 채 상당한 정도의 동질성을 유지해 가며 주위의 다른 민족과 잘 살아 나가는 것이다. 현지어의 습득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각 공화국 개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인역도 맡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한국인과 한국정부도 이들에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차원의 경제적·문화적 교류 활성화와 그 결과로서 현지 한인들의 생활기반 안정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그리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한인들의 자부심 고양 등이 한인들에 대한 자극제로 작용할 때 한인과 한국인 사이의 인식의 공감대가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조국과 민족의식을 되찾아 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고송무(1990), 《소련의 한인들: 고려 사람》, 이론과 실천사.

김문욱(1997),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현황과 장래", 미발간 논문.

김 표뜨르(1991),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화협회.

민족통일연구원(1993),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교포 정책》.

박명규(1996), "중앙아시아 한인의 집합적 정체성과 그 변화",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문학과 지성사.

안무혁 · 이부영(1993), 《중앙아시아 한인사회 실태조사 보고서》.

이광규 · 전경수(1993), 《재소 한인 : 인류학적 접근》, 집문당.

이정옥(1996), "중앙아시아 한인 가족 구조의 변화",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문학과 지성사.

이종훈(1994), "중앙아시아 한인문제와 정책과제", 《한민족공영체》 제2호, 해외 한민족연구소.

정근식(1996), "중앙아시아 한인의 일상생활과 문화",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문학과 지성사.

정동주(1995), 《까레이스끼, 또 하나의 민족사》, 우리문화사.

최한우(1996), "구소련 해체 후 중앙아시아 현상과 한인 정체성 문제",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문학과 지성사.

abstract

#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Ethnics in Central Asia

Sungho Chung

There are about 400,000 Korean ethnics living in Central Asia. Most of Koreans in Central Asia are leading a stable middle class life mostly engaged in farm work. With increase of educational attainment of their children, a number of Koreans are launching into political and academic circles as well as in the cultural world or the press.

In recent years, however, the countries in this area(Uzbekistan and Kazakstan) for this study advocate an ethnic united policy to stabilize the politics and society and to carry out efficient transformation from the former socialistic economy to a market oriented economy. In addition, they are trying to recover the culture and the language of each nation which has been forgotten in the assimilation of Russia policy. Koreans have difficulty in adaption to this kind of change.

In fact, a number of Koreans lost traditional culture and could not speak their mother language - Korean. Although they more or less maintain national consciousness, they recognize Uzbekistan or Kazakstan as their nation politically. They associated with North Korea unilaterally before the launching of the Perestroika policy. But after the Seoul Olympics held in 1988, there was movement to know and understand South Korea. There has been increased in the investment by Korean companies in Central Asia. Now, what is an alternative idea for Korean community consciousness?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increase of aid to Korean education institute: Considering the last few decades of Russia's strong racial assimilation policy, which leads most Koreans to lost their language and national culture, the priority should go to Koreans education.
2) Local Korean press support: Though Korean newspaper are published and Korean broadcasting is on the air currently in Uzbekistan and Kazakstan, they are suffering from qualified staff and poor financial status. Therefore, positive support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se Korean mass communication media outlets to recover their own function and expand their dissemination powers quickly.
3)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for Korean Community: It is essential to directly examine the local Korean community's regional distribution, population structure, Korean group's formation and operation, social and cultural understanding, racial consciousness, hope for their mother land and much more.
4) Increase of mother land and education opportunity: To stir up national culture and national consciousness within the Korean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expand continuous opportunities for mother land visits and education training for local Koreans, especially for second and third generations.